

“모든 세대가 참여하는 프로그램 개발 운영”

진안문화원장 이·취임식 개최... 8대 우덕희 문화원장 취임

진안문화원장 제7대, 8대 이·취임식을 25일 오전 10시30분 신갑수 군의장, 이한기 도의원, 군의원, 윤석정 재전 향우회장, 전라북도 문화원연합회 나종우 회장을 비롯해 관내 기관·사회단체장, 회원 등 3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안문화회관에서 개최했다.

이날 6~7대 문화원장을 역임하고 이임하는 이재명 원장에 대한 8년 동안의 문화원 발전과, 진안군의 대표 축제인 홍삼축제 공동위원장을 맡아 크게 향상시키는 등 그동안의 공적사항이 발표돼 회원들의 뜨거운 박수갈채를 받았다.

이어 8대 문화원장으로 취임한 우덕희 원장은 “진안문화원은 그동안 충분치 못한 여건에서도 자치단체를 비롯한 관련기관의 따뜻한 지원과 전임 원장님들을 중심으로 문화원 회원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력이 힘입어 문화원이 발전을 거듭해 왔다.”고 말했다.

우 원장은 앞으로의 포부에서 “지금 지역사회는 고령화가 급속도로 진행되면서 젊은이들이 자칫 소외되기 쉬어 지역 문화 발전이 지체될 수 있다는 염려가 있다.”며 “이에 저는 문화원에서 모든 세대가 참여하여 세대 간의 단절을 줄이기 위한 줄이기 위한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운영하겠다.”



진안문화원장 제7대, 8대 이·취임식을 25일 관내 기관·사회단체장, 회원 등 3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안문화회관에서 개최했다.

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우리 지역으로 많이 이주해 온 귀농·귀촌 가족, 다문화 가족까지 모두 아우르는

문화 향유의 기회를 더욱 늘려 가는 방안을 적극 강구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진안=우태만 기자

NH농협 순창군지부, 밤 수확기 맞아 농촌일손돕기 주력

NH농협 순창군지부(지부장 장경민)은 본격적인 농산물 수확기를 맞아 부족한 일손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가지원에 주력을 하고 있다.

순창군 동계면에서는 300여 가구가 주소득원으로 510ha 상당의 밤 재배를 하고 있으나 농촌인구 고령화에 따른 일손부족으로 수확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최근 태풍 등 나파까지 겹쳐 이종고에 시달리고 있다. 이 같은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NH농협 순창군지부에서는 25일 농협 직원들 약 20여명과 함께 동계농협 판매장에서 집하, 선별 등의 일손을 도와주는 봉사활동을 펼쳤다.

장경민 지부장은 “수확기 농촌일손돕기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특히, 고령 및 부녀 농업인을 중심으로 일손이 부족한 농가지원에 적극 나설 계획”이라고 밝혔다.



/순창=이양원 기자

전북대 김현우 교수, 제6회 젊은공학교육자상 수상

전북대학교 김현우 교수(공대 환경공학과)가 (사)공학교육학회가 주관하는 제6회 젊은공학교육자상을 수상했다고 전했다.

이 상은 국내 공학계열 학부에서 공학교육 혁신에 이바지한 부교수 이하 젊은 교육자를 대상으로 수여된다. 김현우 교수는 2014년 전북대에 임용된 뒤 공학교육인증 환경공학전문 프로그램의 운영을 주관하는 PD교수로 활발한 활동을 해왔다. 또한 공학교육인증 평가위원으로 활동하고 있으며, 지난해 시행된 2018 산업계관점 대학평가에서도 환경공학과가 최우수학과에 선정되는 데 이바지 하는 등 전북대 공학교육의 혁신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장은성 기자

타이거즈리브투게더 9월 문화나눔 지원사업

사회복지법인 삼동회 무주종합복지관(관장: 이영재)에서는 (사)그린라이트에서 지원하는 '타이거즈 리브 투게더 9월 문화나눔지원사업' 공모에 선정되어 복지관 이용 장애인 20~60세 총 28명을 대상으로 지난 24~25일 1박 2일 동안 전라 지역 일대에서 야구장 경기 관람 및 지역 문화 활동을 실시했다.

이번 전라도 지역 일대에서 진행된 문화나눔 지원사업은 기아자동차와 KIA타이거즈 구단 임직원 및 선수들의 기부 참여를 통해 조성된 기금으로 사업이 진행되었다. 첫째 날(24일)은 광주에서 진행된 타이거즈 야구경기를 관람하고 둘째 날(25일) 담양 지역의 관광지를 둘러보는 등의 일정으로 힐링의 시간을 가졌다.



/무주=전문선 기자

남원시, 서울시 공무원과 상생협력 동행

남원시가 중앙부처 및 전국 지자체 공무원을 대상으로 진행하고 있는 춘향골 남원탐방교육인 '남원다(多)움'을 말하다'가 호평을 받고 있다. 남원시가 올해 2년째 실시하고



있는 남원탐방 교육은 남원의 풍부한 문화·역사·관광·생태자원을 널리 알려 관광소득으로 유도하고, 힐링 에너지를 극대화할 수 있는 체험 프로그램으로, 2일부터 3일간 진행되는 이번 탐방은 서울시 공무원 40여명이 참여해 남원의 품격 높은 역사와 문화를 보고 체험할 예정이다. 첫날인 24일에는 남원의 관광랜드마크인 관한루원과 만인의총, 춘향대 마파르를 둘러보고 천년남원의 문화와 역사를 체험했으며, 25과 26일에는 ▲지리산둘레길 ▲곡악의 성지 ▲지리산허브밸리 ▲남원시립김병중미술관 ▲홍불문화관 등 남원의 아름다운 역사와 문화자원을 체험하고, 2017년 한국관광의 별을 수상한 전통한옥호텔 남원예촌에서 숙박하면서 한옥의 아름다움과 그윽한 향기를 만끽한다.

/남원=김기두 기자

원광대, 현장실습 수기공모전 개최

원광대학교(총장 박맹수)는 2019학년도 현장실습 수기공모전을 최근 학생지원관 산학교육강의실에서 개최했다.

LINC+사업단이 주최하고, 현장실습지원센터가 주관한 이번 수기



공모전은 현장실습 이수학생들의 실습체험수기 발표를 통한 현장실습 관심도와 참여율을 확대하고, 현장실습 교육의 내실화 도모를 목적으로 이루어졌다. 대상을 수상한 이세정(화학융합공학과) 학생은 “수기공모전을 통해 현장실습 경험을 되돌아보고, 향후 취업 또는 진학에 대한 각오를 다지는 기회가 됐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현장실습 수기공모전에서는 본선 진출자 중 체험수기 발표 평가를 통해 최고득점 학생 순으로 최종 우수작 2편을 선정했으며, 향후 한국연구재단에서 주최하는 LINC+사업 현장실습 수기공모전에 제출할 예정이다.

/익산=장영원 기자

전주교대, 2019학년도 황학체육대회 개최

전주교육대학교(총장 김우영) 재학생들의 축제인 황학체육대회가 24일 전주교대 캠퍼스 일원에서 열렸다고 밝혔다.

매년 열리는 황학체육대회는 전주교대 재학생 모두가 참여할 수 있는 구기종목, 볼이게임 및 상설프로그램 등을 운영해 화합의 장을 마련하고, 이를 통해 단결심을 향상시키기 위함이다.

또한, 재학생간의 협동심을 일깨우며, 학교에 대한 소속감과 애교심을 고취하고, 규칙을 준수하며, 승패를 인정함으로써 올바른 준법정신 함양 및 페어플레이정신 등을 습득한다.

올해 구기종목에는 축구와 배드민턴, 볼이게임에는 단체줄넘기, 지구물 옮겨라, 계주, 줄더리기, 2인3각, 상설게임으로는 자유투던지기, 동전던지기, 물병 발로 차기, 공 튀기기 등의 게임이 진행됐다.

김우영 총장은 “스포츠클럽을 통해 건강한 학생상을 구현한다는 의미에서 황학체육대회는 그 의미가 크다”며, “학업의 짐은 잠시 내려놓고 학우들과 함께 행복한 시간을 갖길 바란다”고 말했다.



/장은성 기자

전주매일 www.jimaeil.com 2019년 11월 25일 (목요일)
 등록번호 전북 가00016 (우)960-912 전주시 영신구 기린대로 222-4층 (서노출동)

발행·편집인 조봉성 부회장 김승근

• 대표전화 288-9700 • 업무국 FAX 288-9703 • 편집국 FAX 288-9704

전주시 010-9845-4113	중앙지사 010-9888-6674	남원지사 622-3896	고창지사 563-6989
삼정지사 010-2333-4791	인후지사 246-6855	김제지사 547-8855	임실지사 010-9842-2725
서신지사 272-9417	순창지사 255-2404	완주지사 246-8855	진안지사 433-3084
효지사 010-9845-9355	팔복지사 253-6944	남원지사 622-3896	정읍지사 538-3387
	교신지사 010-6789-0038	순창지사 653-0444	장수지사 010-3882-8157
	익산지사 659-9323	부안지사 010-2425-4182	무주지사 010-2300-4253

*구독료 : 월10,000원, 1부 500원 인쇄인 이상현 본지는 신문윤리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지구상에서 가장 빨리 뜨거워지고 있는 곳 '북극'

우리집을 지켜주세요

전문가에 따르면 자동차와 공장에서 나오는 탄소 배출량 증가로 인한 지구 온난화로 빙하들은 점점 녹고 있으며, 이는 지구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다. 해양 얼음의 손실은 지구가 태양 광선을 효율적으로 반사하지 못한다는 것을 의미하고, 결국 지구 온도의 상승을 초래할 것이기 때문이다.

전주매일 지구온난화 캠페인